

친정엄마와 나의 꽃 이야기

백목련

40여년도 훌쩍 넘은 기억 속 엄마의 공간에는 언제나 식물들이 있었습니다.
조그만 화단이든 작은 화분이든 흙을 담을 수 있는 공간에는 언제나 싹이 돌아
났고,
알록달록 꽃이 피던가 아니면 주렁주렁 무언가 매달려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작은 골목이 유난히도 길었던 자그마한 집 담장에는 여름이면 눈이 시리도록 붉
은 넝쿨장미가 한 아름 꽃을 피웠고, 앞마당 작은 꽃밭에는 구기자나무가 대문
지붕위로 가지를 뻗어 붉고
가름한 열매를 소담스럽게 피워 낼 때면 입구에 흰빛 샅샅개는 신이 나서 꼬리
를 흔들며
팔짝팔짝 뛰곤 했지요. 꽃밭은 여름이면 야생화들의 놀이터였고, 겨울이면 김장
항아리들의
포근한 안식처였답니다. 장미꽃이 활짝 피어 날 때면 담장 옆에서 꽃이 되어 가
족사진을
찍었고, 주말이면 앞마당에 석유곤로를 가져다놓고 둘러앉아 삼겹살도 구워먹고,
볶음밥도
해먹으며 화기애애하던 그 웃음소리가 지금도 귓가에 들리는듯합니다.

몇 년이 지나 위쪽 큰 골목 이층집으로 이사 가서도 엄마와 아빠의 식물 사랑은
계속되었지요.
3층 옥상의 작은 텃밭에는 온갖 쌈 채소와 토마토, 가지, 오니, 호박 등이 자랐
고,
1층 꽃밭 감나무에 열린 붉고 커다란 대봉감은 가을에 아주 맛난 간식이 되었답
니다.
온갖 야생화와 이름 모를 울긋불긋한 꽃들은 앞마당을 가득 채웠고, 그 향기는
담장 너머로
멀리 날아갔지요. 옥상에는 아버지의 온실이 만들어지고 동양난의 꽃향기가 그
윽하게
넘쳐 났답니다. 옥상에 물이 담긴 그릇들안에 담겨있던 붉은 나무토막들에서 시

간이 흐르고

계절이 바뀌어 싹이 나고, 가지들이 자라나 멋지고 고운 소사 분재로 탈바꿈해 가는 모습들을

보며 어느 샌가 나의 마음속에도 식물들에 대한 고마움과 사랑이 싹트고 있었나 봅니다.

결혼 후에는 옥상 텃밭에 아버지께서 직접 만드신 대나무 평상과 햇별을 가리는 천막이

쳐지고, 가족들이 모이는 날이면 엄마의 텃밭에서 수확한 각종 쌈과 야채들을 벗삼아 삼겹살 파티가 열렸고, 때론 아이들의 체험학습장이 되기도 했지요. 고사리 손으로 직접 물도 주고,

열매도 따보면서 신기해하던 모습들이 이제는 그리운 추억으로 남았습니다.

두 분이 정성스레 가꾸시고, 키우시던 나무와 꽃들의 냄새와 그 앞에서 활짝 웃으시며 행복해 하던 모습과 옥상 텃밭에서 따먹었던 그 향긋한 맛들이 기억이 되고, 가족들이 함께 했던

추억들이 모여 그리움으로 남아 30여년이 지나도록 베란다 화분에 야생화와 호접난들을

심고 가꾸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베란다 정원을 만든 것은 88년도 12월에 안국아파트 6동으로 이사를

오고 몇년이 지나서였던 것으로 기억이됩니다. 처음 이곳으로 이사를 왔을때는 변화가였던

서울과는 달리 주변이 아무것도 없어서 낯설었습니다 베란다 앞쪽으로 승학산의 사계절의

변화하는 모습을 모두 볼 수 있었고, 가끔은 산 속 예비군 훈련장에서 들려오는 총소리와 섞여 이름 모를 새들의 노랫소리도 들려오곤 했기에 위안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철없이 엄마

품에서 학교와 작장을 다니다 결혼을 한 저는 3대가 7남매의 장손며느리에 위로 누님이 네 분 손아래 여동생이 있었고, 많은 행사들과 가족 모임들 그리고 동갑내기 복학생 시동생과

신혼때부터 2년정도 함께 살아야했던 시간들이 무척이나 힘이 들었나봅니다.

서울에서 자라 결혼해 신랑 직장을 따라 인천에 터를 잡게되었던 저는 모든게

낯설었고, 마음 줄 친구도 없다보니 병인 줄도 모른 채 마음의 병은 깊어만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친정집의 꽃밭이 그리웠고 식물들이 답답한 마음과 일상을 달래 줄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즈음에 친정아버지께서 작은 소사분재 3그루와 동양 난 하나를 생일 선물로

가져다주셨습니다. 20평형 아파트 작은 베란다에 아버지의 선물을 놓아두고 아침저녁

물도 주고, 베란다 창문을 열어 환기도 시켜주고, 별도 쏘여 주다보니, 분재의 앙상하던

가지 새로 잎도 돌아나고, 동양난도 꽃대가 올라와 작고 흰빛의 백합 닮은 꽃송이가 수줍은 듯

고개를 들었는데 그 은은한 향이 방안 가득 퍼졌습니다.

어린 두 딸도 신기해했고, 제 마음도 조금은 편안해지면서 항상 무겁게 다가왔던 두통도 사라지는 듯 했습니다. 모르면 아버지께 여쭙보고 가을이면 분갈이도 해주고 거름도 주고요 겨울엔 나무그루터기에 앙상한 가지만 있던 분재들이 봄이면 새순이 나고 잎이 무성하여 작은 숲을 이루는 것도 신기했지만, 난을 한 포기 한포기 나누어 옮겨 심은 데서 다시 새순이 올라오고 자라 꽃을 피워 내던 그 모습은 신비롭고 황홀하게 느껴졌습니다.

97년 막내가 태어나 5살인가 되었는데 식물을 유난히 좋아하기에 아파트 화단에다 해마다

고추와 호박 모종을 심어놓고 아이와 함께 가꾸며 관찰하게 했었지요.

그런데 열매가 자라면 누군가 따 갔는지 하나도 없지 뭐예요 아이들이 장난을 쳤나 생각하다

하루는 아들에게 물어 보았지요 후후 아이의 대답을 듣고 기특하기도 하고 엉뚱하기도 해서

혼자 웃었던 기억이 납니다. 엄마~ 고추나 호박은 할머니들이 좋아하시는 음식이잖아요

그래서 놀이터에서 놀다 목이 말라 동네 친구 집에서 물을 마시게 되면 고마워서 따다가

드시라고 드렸지요~ 귀여워 꼭 안아 주었습니다. 잘했다고 어깨를 토닥토닥 두드려 주었지요

꽃과 나무들은 사계절 그들만의 모습이 있고, 향기가 있어 그냥 바라보고만 있어도 좋지만,

저는 그중에서도 들에 피어있는 이름 없는 들풀과 야생 꽃들이 좋았습니다
그러나 서양난이라고 불리는 호접난도 무척 아끼고 사랑하지요. 그들은 화려한 모습에

귀한 대접 받고, 선물로 많이 보내지지만, 사람들은 대부분 꽃이 지고나면 그냥 버리거나

대부분 화원에 와서 다른 것을 심어 갑니다. 저는 그 모습이 안타까워 시들해지거나 꽃이 저서 화원 한켠 박스에 담겨있는 아이들을 데려와 키우곤 했습니다.

호접난은 꽃보다 뿌리가 싱싱하면 다음해에도 그 다음해에도 겨울을 나고 나면 고운 꽃을

다시 피워내고, 별다른 도구 없이도 2리터 생수병에서 수경재배가 편하기도 하고요,

푸른 잎만 바라봐도 하루가 즐거워지거든요.

모두 다는 아니지만 해가 바뀔 때 마다 새롭게 피고 지고 하는 이친구들이 저는 무척이나

사랑스럽습니다. 잎이 다 떨어져 죽었는가 하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뻗어 오른 통통한 뿌리들.. 그 좁은 새로 고개 내밀어 세상 구경하겠다며 알알이 맺힌 꽃망울들..

이제나 피려나 바라보면 아기 손톱만큼 자랐고, 하룻밤 자고나니 다른 가지에서 또 다른 꽃대가 자라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신비로운 일인가요?

하루 이틀.. 일주일.. 한 달, 두 달이 지나 4월초 따스한 어느 봄날 하이얀 꽃망울이 툭 터져

흰 나비 닮은 꽃 한 송이 활짝 웃고 나더니 6송이 꽃들이 함박웃음을 머금고 나를 반깁니다.

시샘이라도 하는걸까? 옆 생수 병에서 연보라빛 꽃이 피어나더니 여기저기서 꽃대들이

춤을 추며 솟아오르고 꽃망울들이 몽글몽글 피어났습니다. 여름이 문턱을 넘으면 모두들 활짝 웃으려나? 그 때 모른척 두고 왔더라면 이 행복이 내게 왔을까?

좁아서 미안하고 잘자라주어 고맙기만 합니다.

아침마다 이 아이들을 바라보고 이야기를 나누어봅니다.

저기 다른 꽃대에 맺혀 있는 꽃봉오리는 무슨 색일까? 얼마나 고울까?

매일매일 아침이 기다려지고, 마음 설레입니다. 아파트 베란다 작은 정원에는 많은 벚들이
함께 살고 있고, 모두 다 사랑하고 아끼지만, 저는 그중에 특히 할미꽃을 좋아한
답니다.

10여년전 돌아가신 친정 엄마 산소 앞에 한 무더기 피어 있던 자주빛 고운 할
미꽃..

자주 빛 꽃잎은 제가 결혼할 때 곱게 입으셨던 한복 저고리 끝동과 웃고름 그
리고

하얀 목련꽃이 수놓여 있던 치마 색과 닮아서 좋구요, 동그스름하고 그 안에 노
스름한 암술과 수술이 달린 꽃의 모습은 엄마의 활짝 웃으시던 모습이 생각나
고, 바라보고 있으면 엄마를

보는 것 같아 좋아합니다. 자그마하고 푸른 빛 잎 새에 둘러싸여 피어난 꽃봉오
리는 커다란

교자상 앞에 다소곳이 앉아 서예도 쓰시고, 사군자도 그리시던 엄마의 모습이
떠올라

행복합니다. 꽃이 다 지고나면 안개 실같이 바뀌어 있는 씨앗의 모습은 엄마의
세월 묻은

흰 머리칼처럼 빛나니 좋아지고요, 가볍게 날아다니는 홀씨는 루게릭병으로 1년
여동안

고생하다 먼 여행을 떠나신 엄마가 봄 마중을 나오신 것 같아 반갑습니다.

그러나 베란다 작은 정원에서는 잘 자라지 않아 봄이면 화원에서 사들고 옵니
다.

올해는 4월 중순 임실 동생 집에 표고버섯 배지 작업을 도와주고 오는 길 2년
만에 들른

엄마 산소에서 한포기 엄마에게 선물 받아 데려 왔습니다.

우리 집 베란다 작은 정원에는 하늘매발톱, 심비디움, 호접난등 이름은 잘 몰라
도 모두들 함께살고 있습니다. 식물들과 같이 지내다보면 우리들이 식물들을 돌
보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우리들을 자라게 하고, 사람들과 소통하는 법을
가르쳐주고, 몸과 마음을 치유해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자라는 새싹을 보며 희망을 배우고, 아름다운 꽃들을 바라보면서
생명의 소중함을 알게 되고, 기쁨을 느끼며, 하루하루 삶의 활력소가 되고, 마음

의 위로를 받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러는 가운데 계절의 변화도 관심을 갖게 되었고, 답답하고 다친 마음도 점차 사라져 가고, 몸도 건강해져 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언제부터일까요?

저에게 작은 베란다 정원은 그냥 꽃밭이 아니라 생활의 일부였고, 기쁨이 머물고 있는 행복한 숲이었네요

또한 친정 부모님에 대한 행복한 추억이고, 그리움이 담겨있는 소중한 장소이기도 하고요

아파트 베란다 창문 너머로 밝은 햇살에 눈이 부십니다. 하늘도 푸르고 맑으며 뭉게구름들이

한가로이 노닐고 있습니다.

멀리 신비 아파트 사이로 가을빛으로 물든 승학산이 보입니다

오늘따라 그 산이 우리 아파트 가까이 있다는 게 고맙게 느껴지고, 아름답게 보이는 것은

마음 탓일까요? 늦은 점심 한술 뜨고 승학산 둘레기로 여행 떠나 보려합니다.

가방에 생수 한병 책 한권 넣고서 자연의 품으로 GO~~GO~~ 발걸음도 가볍게...